

## 광림교회 오시는 길 \_ Information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 02.2056.5600 | 5700



-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4,5번 출구 - 도보 5분
- 버스**  
압구정역 버스정류장  
간선 147, 148, 240, 463  
지선 33, 4211
- 광림교회 버스정류장**  
간선 143, 240, 342, 362, 440, 472  
지선 3011, 4318, 4412, 4419
- 주차장 이용안내**  
광림사회봉사관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와  
YOUTUBE(광림교회 채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예배모임안내

####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 4부 오후 2시 30분 (찬양예배)  
2부 오전 9시 | 5부 오후 4시 30분 (젊은예배)  
3부 오전 11시 | 저녁 오후 7시 30분

#### 주일 외국어 예배

영어 오후 2시 30분 웨슬리관 3층  
중국어 오후 3시 웨슬리관 5층

#### 수요 치유의 신학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금요 은혜의 밤

금요일 오후 8시

#### 새벽기도회

1부 새벽 5시 벨엘성전  
2부 새벽 6시 교육관 2층

### 광림남교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45 031.693.7960

####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 수요 치유의 신학  
2부 오전 9시 | 수요일 오후 7시 30분  
3부 오전 11시 | 금요 은혜의 밤  
4부 오후 2시 30분 | 금요일 오후 8시  
저녁 오후 7시 30분 | 새벽기도회  
1부 새벽 5시 | 2부 새벽 6시

#### 광림서교회

인천시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96 032.721.5750

####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 광림북교회  
2부 오전 9시 | 경기도 의정부시  
3부 오전 11시 | 송현로 82번길 5  
저녁 오후 7시 30분 | 새벽기도회  
새벽 5시

발행인 김정희 | 기획·디자인 광림교회 문화홍보실 | 02.2056.5623

# 광림의 강단

\* 다시금 고백해야 할 우리의 믿음



- 2부: 나사렛성전(야별 6시)
- 1부: 벨엘성전(야별 5시)
- 1부: 2월 22일(수) ~ 4월 8일(토)

〈십자가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동행〉

## 사순절 준비의 기도회



- 환문계좌: 우리카회 1005-803-992104
- (기독교대한교회의회) 후원: 권영민 목사
- (기독교대한교회의회) 후원: 권영민 목사

## 안디개가사회의 힘 튀르키예 근후환난에 대한

광림교회(www.klmc.church)  
바른길 49

### 새가족공부

공부: 02-2056-5716

공부: 02-2056-5716

### 교회학교

공부: 02-2015-1168

공부: 02-2015-1168

### 교회학교를 위한

공부: 02-514-8871

공부: 02-2056-5631

### 교회학교를 위한

공부: 02-2015-1168

공부: 02-2015-1168

### 교회학교를 위한

공부: 02-2056-5716

공부: 02-2056-5716



# 다시금 고백되어야 할 우리의 믿음

담임목사 김 정 석

“1.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2.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3.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나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4.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5.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6.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8.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9.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1.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12.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창세기 47:1-12)

야곱의 인생을 드라마 제복처럼 달 수 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인생역전의 사람, 복을 구하는 사람에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인생을 복되게 마무리 한 사람, 황혼이 새벽보다 아름다운 사람,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성경에 야곱은 믿음의 조상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삶이 야곱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 첫째로, 하나님께 생사화복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받아 가정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을 피해 고향을 떠나 삼촌의 집에 가서 복된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또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자 14년간 삼촌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야곱은 집착과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스스로 노력하고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위기를 맞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생사화복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삶의 변화는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여정이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사랑과 긍휼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야곱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게 됩니다.

본문에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바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바로를 부러워하지 않았기에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이 있음을 깨달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다시금 쓰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 둘째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본문 9절에 야곱은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복된 인생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외롭고,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

님께 예배를 드리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을 앞두고 브엘세바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림을 기억하고, 야곱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야곱과 이스라엘이란 두 이름 함께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해서 다급하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연약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고 함께하며, 지금도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해주셨습니다.

이후 창세기 48장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팔을 엮갈려 머리에 얹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면서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뜻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 셋째로,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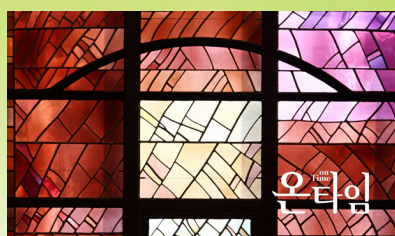
본문에 야곱은 바로를 만나 두 번 축복했습니다. 또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된 이유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후손들이 복을 누리도록 하셨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구했지만, 후손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야곱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축복은 소유와 지식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목적을 깨닫는 사람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인생은 부요한 인생입니다. 야곱이 축복의 통로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인생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봅니다.

야곱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온라인 영상 콘텐츠 이용 안내



주일설교, 온타임 묵상 등 영성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에서 광림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추가 영상을 손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빛의 숲 서점



광림사회봉사관 내 위치한 편안하고 따뜻한 빛의 숲 서점에는 성경책과 다양한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02-2015-1187